

명자꽃



- ▶ 과명 : 장미과
- ▶ 학명 : Chaenomles lagenaria
- ▶ 영명 : Flowering Quince
- ▶ 한명 : 白海棠
- ▶ 일명 : ちょうせんぼけ

봄이 되면 잎을 뽀족이 내미는 사이에 흰꽃, 붉은꽃, 연분홍꽃으로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은은하고 청초한 느낌을 주어 「아가씨나무」 「치녀화」라 부르기도 한다. 꽃중의 꽃으로 봄을 밝히는 관상수로 많이 이용되고 꽃이 진뒤 진한 녹색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열매는 모과처럼 향기가 좋아 과실주를 담그기도 한다. 중국이 원산지라 하고 언제 들어왔는지도 기록이 확실치 않고 경남북, 황해도에서 야생상으로 자라는 것이 있다 한다. 필자가 명자나무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여동생의 이름이 그 이름과 같기 때문이요, 성질 또한 비슷하여 가시가 달려있고 제철을 모르고 꽃을 피우려다 혼쫌이 나는 것 역시 서로 닮은꼴이다.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명자

1. 생태적 특성

낙엽활엽 작은키나무로 높이가 2m 안팎으로 자라는 봄철의 화목인데 중국이 원산으로 도입년도도 불확실하고 경남북과 황해도에도 자생지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지표면에서부터 많은 가지가 올라오고 잔가지도 많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로 자란다. 다소 그늘진곳에서도 잘 자라며 습기를 좋아하여 건조한 곳에서는 생장이 좋지 못하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며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이고 길이 4~8cm, 넓이 1.5~5.0cm로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짧다. 꽃은 단성으로서 지름 2.5~3.5cm이고 4월에서 5월까지 계속피며 꽃잎은 5개로서, 백색, 분홍색, 빨강의 3가지색이 조화를 이룬다. 꽃이 지고나면 녹색의 타원형이과가 8월이 되면서 노랗게 익는데 길이 10cm 정도이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조경수로 큰나무아래 단목으로 식재하거나 둥글게 수형을 조절하여 식재하여도 좋다. 생울타리로 심어 잘 전정하면 아주 훌륭한 울타리로 되



▲ 명자꽃

는데 짧은 가지가 변형되는 가시를 역이용하여 울타리로 이용한다면 도둑도 막고 꽃도 즐길수 있다. 분화로 식재하여 실내에서 키운다면 봄꽃으로 감상할만하며 절화로도 사용한다.

4. 번식법

번식은 종자와 꺾꽂이, 포기나누기, 휘묻이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종은 접붙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꺾꽂이로 번식시킨다

- 삽목번식(꺾꽂이)

꺾꽂이는 봄 3월과 가을 10월에 하며 소재는 지난해 자란 가지나 저지난해 자란 묵은 가지가 활착율이 좋다. 봄에는 싹트기 전에 15cm길이로 잘라 진흙에 반 정도 묻히게 꽂는다. 가을에는 화분에 진흙을 넣고 같은 요령으로 꽂으면 쉽게 뿌리가 난다. 꽃을때는 깊게 꽂은 것이 얇은 것보다 발근이 더 잘된다.

- 포기나누기

이른 봄 싹트기 전에 전체를 파내어 2~3포기로 쪼개고 가지도 반정도의 길이로 잘라 크기를 줄인다.

- 휘묻이

봄에 줄기 주위에 흙을 분돈아 주면 겉 줄기가 많이 나오며 뿌리가 난다.

- 종자번식

종자를 정선하여 가을에 화분에 직파하면 잘 싹 튼다.

5. 그 밖의 용도

익으면 신맛이 있어 식초를 만들기도 하며 한방에서는 각기, 현기증 등에 쓰며 능금산 엑기스를 만드는데도 이용한다. 🌿